

김하자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양 선 영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김하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양 선 영

# 인 준 서

양선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문 요약>

서구 사회의 성개방과 음란 퇴폐문화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히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실태가 심각한 수위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무분별한 청소년의 성행위는 ‘낙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낙태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는 태아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게 됨으로써 ‘생명경시’ 현상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바르게 자라야할 청소년들의 인격형성 및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낙태 문제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낙태와 생명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현재 청소년들은 어떠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14개교의 남, 여학생 1026명 (남:513명, 여:5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배포·수합·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자료의 기준 및 처리 방법으로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대상학교는 서울 지역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의 성의식 및 생명, 낙태, 낙태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의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의 신체접촉은 정도에 따라 다르나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으며, 신체적 접촉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키스’ 단계까지를 적정선으로 보았다.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4%였으며, 피임기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혹은 ‘가급적이면 사용한다’가 전체의 83.6%를 차지함으로써 피임기구 사용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었다.

2.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먼저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직후부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태아가 고통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의 93.2%였고, 고통을 느끼는 시기는 생명의 시작시기와는 달리 ‘10주이후(신체구조의 완성)’부터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태아생존권의 결정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즉 결정가능하다)’는 응답이 75.8%였다. 즉 생명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낙태의 영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였고, 낙태를 꼭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이 ‘원치 않는 임신(강간)’을 선택하였다. 또한 혼인 전인 경우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본인의 낙태경험에서는 1.5%만이 응답한 것에 비해, 간접적으로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4%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낙태 결정시 조언자로는 ‘부모님’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나 낙태 결정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간임신, 태아기형,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낙태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4. 청소년의 낙태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낙태법’ 자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에 지나지 않았고,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낙태처벌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낙태시기 제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태아가 최소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5.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예전과 다름없이 현재도 부모님의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며, 생명윤리교육과 낙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만족도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교육은 ‘인터넷’과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교육을 희망했으며,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거나 역할극 등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며 그 심각성을 깨우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분별한 성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낙태와 함께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에 대한 무지가 불러일으키는 성(性)과 생명윤리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연계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및 현상	8
1. 이론적 배경 및 논의의 쟁점	8
1) 생명의 정의와 기원	8
2) 생명권 대 선택권	11
3) 사회적·법적 인식의 모순	15
2. 청소년의 낙태 실태 및 생명경시 현상	25
1) 청소년의 낙태 실태	25
2) 청소년의 생명경시 현상	26
III. 청소년의 낙태에 관한 인식	28
1. 청소년의 성의식	28
2.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인식	30
3.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인식	33
4. 청소년의 낙태법에 대한 인식	41
5.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	43
6. 조사결과	47

IV.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명교육 모색	52
1. 가정에서의 교육	52
1) 가정교육의 실태	52
2)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모색	53
2. 학교에서의 교육	54
1) 학교교육의 실태	54
2)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모색	58
3. 사회(대중매체)에서의 교육	60
1) 대중매체 유행성의 실태	60
2) 바람직한 대중매체 교육의 모색	63
V. 결론	65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 표 목 차 >

[표1] 학년별 남·여 학생수와 학교형태별 학생수 -----	5
[표2] 학년별·성별 학생수 -----	5
[표3] 신체접촉의 가능여부 -----	28
[표4] 신체접촉의 허용범위 -----	29
[표5] 성경험 유무 여부 -----	29
[표6] 피임기구 사용 여부 -----	30
[표7] 생명의 시작시기 -----	31
[표8] 태아의 고통여부 -----	31
[표9] 태아의 고통시기 -----	32
[표10] 태아의 생존권 -----	33
[표11] 낙태의 영향 -----	33
[표12] 낙태의 이유 -----	34
[표13] 혼인 전·후 임신의 낙태가능 여부 -----	35
[표14] 낙태 유무 여부 -----	35
[표15] 간접적인 낙태경험 유무 여부 -----	36
[표16] 낙태 결정시 조언자 -----	36
[표17] 낙태 결정시 의사결정권 -----	37
[표18] 타인의 강간임신의 경우 -----	38
[표19] 본인의 강간임신의 경우 -----	38
[표20] 타인의 태아기형(다운증후군, 간질, 전염병 등)의 경우----	39
[표21] 본인의 태아기형(다운증후군, 간질, 전염병 등)의 경우---	39
[표22] 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 -----	40

[표23]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 -----	40
[표24] 낙태의 범죄성 여부 -----	41
[표25] 낙태처벌 여부 -----	42
[표26] 낙태법 수정시 낙태의 적절한 시기 -----	43
[표27] 부모님 유무 및 가정에서의 교육 -----	44
[표28] 생명윤리 교육 및 교육장소 -----	45
[표29] 낙태 정보원 -----	45
[표30] 희망하는 생명윤리 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 -----	47
[표31] 6차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도덕·윤리 교과과정 -----	56
[표32] 7차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도덕·윤리 교과과정 -----	56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생명이며, 생명존중의 사상은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의 유지·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이다. 그러나 21세기는 첨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 생명의 신선성이 약화되고 인간소외의 현상이 늘어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생태학적 위기와 생명경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고 가속화되고 있다.<sup>1)</sup>

또한 우리 사회는 성 혁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의 개방과 성에 대한 정보의 홍수상태로 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성의 중요성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서구의 개방풍조가 서서히 과급되어 전통적 성 윤리관을 깨뜨림으로서 점차 커다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토론하지도 않으며 어쩌다 성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sup>2)</sup>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성에 대한 관심부분을 이야기하거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성립된 성지식들은 결국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개념들을 낳게 된다.

---

1) 尹順愛,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仁川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p. 1.

2) Haim Ginatt, 『부모와 십대의 사이』, 김순희 역, 종로서적, 1980, p.134.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성지식에서 비롯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낙태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가 시행될 수도 없고, 낙태 실태를 보고하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으며, 정부에서 그 통계치를 정확히 조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상의 예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계는 늘 있었다.<sup>3)</sup>

1994년 갤럽조사기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 즉 한해에 60만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명의 태아가 낙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2위의 낙태율이다. 이러한 낙태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해 1960년도에는 10만이었고 70년도에는 31만인데 비해 1978년도에는 100만, 85년 이후에는 150만 건으로 하루 4000건, 20초당 1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 여성이며 그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이 있고 이중 85%가 10대이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

---

3) 김현철, "한국의 낙태 현실", 상담과 선교 제8권 제3호, 한국상담선교연구원, 2000, p.81.

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낙태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직감적으로는 낙태가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뱃속의 상태에 대해서나 낙태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아기를 죽이고 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눈감아 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경향과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sup>4)</sup>

여고생 여중생이 길 가다가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하거나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성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명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생명의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전환시켜줄 교육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입시위주의 교육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무지가 곧 낙태로 이어지며

---

4) 김현철, 상계서, 2000, p.82

이것은 생명경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생명이며, 생명존중의 사상은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의 유지·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곧 낙태는 생명의 시발점에서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하고 병원에서도 공공연히 낙태는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도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곧 태아의 인간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의 권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명체인 만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낙태에 관해 살펴보고, 법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정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괴리,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정도와 그들의 생명관이 낙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1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남학생 513명, 여학생 513명, 총 102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14개교의 위치는 강동구, 동작구, 성북구 각 2개교씩,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각 1개교씩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대상 학년은 중학교 1학년 122명, 중학교 2학년 188명, 중학교 3학년 124명, 고등학교 1학년 185명, 고등학교 2학년 279명, 고등학교 3학년 128명이며,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학년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 학교형태와 학년별·성별 학생수는 <표 1>, <표2>와 같다.

<표 1> 학년별 남·여 학생수와 학교형태별 학생수

			학교형태			전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년	중학교1학년	빈도	30	31	61	122
		전체 %	2.9%	3.0%	5.9%	11.9%
	중학교2학년	빈도	94	32	62	188
		전체 %	9.2%	3.1%	6.0%	18.3%
	중학교3학년	빈도	32	29	63	124
		전체 %	3.1%	2.8%	6.1%	12.1%
고등학교1학년	빈도	34	59	92	185	
	전체 %	3.3%	5.8%	9.0%	18.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0	84	125	279	
	전체 %	6.8%	8.2%	12.2%	27.2%	
고등학교3학년	빈도	37	30	61	128	
	전체 %	3.6%	2.9%	5.9%	12.5%	
전체		빈도	297	265	464	1026
		전체 %	28.9%	25.8%	45.2%	100%

<표2> 학년별·성별 학생수

			학년						전체
			중학교1학년	중학교2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2학년	고등학교3학년	
성별	남자	빈도	60	126	63	65	132	67	513
		전체 %	5.8%	12.3%	6.1%	6.3%	12.9%	6.5%	50.0%
	여자	빈도	62	62	61	120	147	61	513
		전체 %	6.0%	6.0%	5.9%	11.7%	14.3%	5.9%	50.0%
전체		빈도	122	188	124	185	279	128	1026
		전체 %	11.9%	18.3%	12.1%	18.0%	27.2%	12.5%	100.0%

##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조사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사회조사

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인데, 그 특색이자 제약은 설문지에 표시된 질문의 한도 내에서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표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찰조사나 실험조사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sup>5)</sup>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에는 우송조사·집합조사·전화조사 및 표준화 면접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우송조사와 집합조사는 응답자가 적는 타기식(他記式)이고 전화조사와 표준화 면접조사는 조사자가 기록하는 자기식(自記式)이다.<sup>6)</sup> 또한 본 설문지는 각 학교학급에서 이루어지게 계획하였으므로 집합조사를 선택하였다.

집합조사는 일정한 장소에 피조사를 모아 놓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흔히 학급에서 조사할 때 이런 형태가 된다. 본 논문의 설문지 문항의 특성상 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문지조사는 설문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조사를 위한 설명이 이루어짐으로 개인의 비밀보장 또한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피조사자가 같은 설문지 문항을 이용함으로 객관적으로 조사조건이 균등해지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급에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업시간이 아닐 경우 피조사자를 집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피조사자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 또한 옆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sup>7)</sup>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7문항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 12문항, 생명의식에 관한 질문 8문항, 낙태에 관한

5) 김광웅, 『방법론 강의』, (서울:박영사, 1996), p.430 -431.

6) 김광웅, 상계서, 1996, p.437.

7) 김광웅, 상계서, 1996, p.438-439.

질문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는 2004년 10월에 배포·수합·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자료의 기준 및 처리 방법으로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각 분야별로 문항별 실수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개 항목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였으며 카이검정( $\chi^2$ )으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대상학교는 서울 지역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고, 표집 수가 많지 않아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의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이 설문지의 문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실되게 대답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설문 내용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 소홀하게 응답한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현상

### 1. 이론적 배경 및 논의의 쟁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와 논란은 오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지만 크게 유신론(有神論)적 관점과 무신론(無神論)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입장은 각각 창조론(創造論)과 진화론(進化論)으로 대립되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한 창조론적 접근은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오늘날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교육적 활동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인간과 우주의 기원 문제를 두고 창조론이 옳느냐 진화론이 옳느냐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한 가지를 단지 선택하고 있거나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선택이기보다는 교육의 영향이나 철학, 개인의 신념이나 기호 등에 의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하나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는지 진화의 산물이든지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최소한의 사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up>8)</sup>

#### 1) 생명의 정의와 기원

생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서 생명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인류의 끊임없는 추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생명이 무엇인

8) 김정옥, “생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연구Ⅱ”, 사회과학연구 제7집 제2호, 1999, p.170-171.

가 하는 문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일회적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sup>9)</sup>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생명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경험세계 속에서 비교적 손쉽게 추상해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일상적 언어 안에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통용되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주위의 대상들 가운데 어느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느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라든가,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경계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마른 나뭇가지가 생명이나 아니냐 하는 물음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땅에 꽂아서 살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런 방식의 처리를 하면, 이것이 다시 싹을 피우고 소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모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가 독립된 생명이나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한 쪽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무한한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명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면 생명에 관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과연 무모한 일일까? 또 반면에 얼마나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할까?

생명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없는 측면도 있다.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설명될 수 있으나, 생명의 본질은 설명될 수 없고 다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생명의 깊은 뜻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해할

---

9) 진교훈 외, 『윤리학과 윤리교육』, (서울:경문사, 1997), p. 169.

수 있을 뿐이다. 생명의 사전적 정의는 동어반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의 엔텔레키아설<sup>10)</sup>을 비롯하여 생명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논의는 이미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데 불과할 뿐 새로운 것을 종합하지 못했으며 생명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의 의미는 쉐러나 베르그송(Bergson, 1859~1941)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생명의 의미는 명증적이며 본질 직관에 의해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환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생명은 인격이나 사랑과 같은 정신 활동이 개념 정의가 될 수 없듯이 개념정의가 어렵다.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 영혼적 생명, 우주적 생명, 영원한 생명 등에 관해 언급한다. 관점에 따라서 생명의 범위는 크고 넓다. 그러므로 생명의 논의는 논점 이탈의 오류 혹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명의 시작은 첫째 수정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둘째 즉 기관이 형성되는 배아기인 수정 후 3주부터 인간의 주체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셋째 수정 후 9-10주부터 태아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넷째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다섯째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이 있다.<sup>11)</sup>

우리는 단지 생명은 의미 있고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살생과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자연적 생명력인 활력(vitality)을 뜻하는 엔텔레키아(Entelechia)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생물에 엔텔레키아가 결합되면 생물로 되고 이것이 제거되면 죽게 된다고 보는 생기론적 견해를 가미한 자연발생설이 고대의 주도적 생명사상이었다.

11) 강재성, “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고찰과 현황”, 기독교사회윤리 제2집, 1999, p. 36.

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 2) 생명권 vs 선택권

### i) 생명권

생명권(pro-life) 즉 생명우선론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낙태찬성론의 활발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낙태반대론은 ‘태아의 생명권 옹호’라는 숙연한 구호 아래 여전히 굳건하다. 우리의 법 역시 기본적으로 생명권의 존중이라는 입장에 서서 낙태를 불법화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한다.”(1985. 6. 11 대법원 판결 84도1958)고 보며, 낙태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권에 근거한 낙태반대론은 근래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그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서 어느 정도의 제한만을 두어 허용하고 있던 국가들도 이의 영향으로 낙태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sup>13)</sup>

인권의 제일은 생을 보존 또는 실현할 권리이다. 자기의 생명을 그 天賦된 한도까지 영속시키는 동시에 그 본질과 능력을 원만히 실현코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권리이다.<sup>14)</sup> 따라서 이 생명의 신성을 마땅히 인정하고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란 자유와 더불어 책임(responsibility)을 전제로 한다. 책임이란 말은 ‘~에게 책임진다’(responsible for~)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윤리적 행동을 하나님에게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가 창조자가 아니라 일개의 피조물

12) 이장형,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 2002, p. 224-225.

13) 오정진, 상계서, 1997, p.105.

14) 張錫英, 『基督教 倫理와 社會制度』,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9), p.69.

인 것을 자인하는 이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존귀와 신성을 잘 지켜나가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sup>15)</sup>

인간의 존엄은 생명의 존엄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남녀의 사랑에 의한 자연적 수정은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에 일치하는 것이지만 인공수정의 경우 태어날 생명에 대한 인간 존엄의 보호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편의 정자를 부인에게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서의 시험관 수정의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적어도 부부 중 한쪽은 난자나 정자의 실제 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제공자가 실제 부부가 아닌 제3자일 때는 그 자의 성명이 기록보존 되어야 하며, 그 제공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족질서에 혼돈을 주지 않고, 부인이 직접 출산해야 한다.<sup>16)</sup> 수정란의 인간생명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수정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인공수정란도 자연 수태된 태아와 동일한 차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채취한 정자나 난자를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거나 매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여성해방론자들은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낙태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면 태아는 인간의 존엄과 함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 권리를 침해당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굳이 생명에 대한 창조론적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헌법정신에 의하면 태아의 살 권리는 임부의 행동의 자유권보다 우선한다. 비록 태아가 생명유지에

---

15) 신형광, “생명의 윤리”, 기독교교육연구 제5집 제1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1994, p.66-67.

16) 김병곤, 『人間的 尊嚴』, 교육과학사, 1996.

있어서 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살인은 태아의 인격적 기초를 파괴하는 반존엄적 행위이다. 다만 임부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다른 의학적, 법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이다.<sup>17)</sup>

낙태되는 태아는 인간의 태아이며 그 흘리는 피도 인간의 피이다. 태아의 생명은 한 개인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아이의 무차별적 파괴는 소름끼치는 형태의 대량학살이며 더 나아가 인간지성의 비인간성의 본보기인 것이다.<sup>18)</sup>

인간사회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낳았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를 낳았다. 이기적인 인간은 인류 공동체 안에서의 공생적 삶을 거부한다. 과학기술적 간통이며 과학의 반인륜적 적용인<sup>19)</sup>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유산 등은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 인격을 억압하거나 모욕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일탈(逸脫) 행위이다. 그들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sup>20)</sup>

## ii) 선택권

다음으로 선택권(pro-choice) 즉 선택우선론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흔히 여성의 낙태에 대한 선택권을 옹호하는 여성주의자들은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라는 구호아래 태아의 보호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

17) 김정옥, 전게서, 1999, p.191-192.

18) 신현광, 전게서, 1994, p.71-72.

19) 소병욱, 『생명윤리』, 분도출판사, 1996.

20) 김정옥, 전게서, 1999, p. 185-186.

것인가 중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여성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에 낙태금지법에 대항하는 서구의 정치적 캠페인은 “나의 배는 나의 것이다!”라는 슬로건이었다. 이러한 슬로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남성들처럼)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관해 소유권을 가지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2) 여성들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sup>21)</sup>

(4)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낙태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 (모든 남성들처럼)여성들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낙태할 권리를 갖는다.<sup>22)</sup>

미국에서는 낙태행위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법원 판결로 제시되어 지금까지도 낙태자유화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즉,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해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던 텍사스주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1) 임신부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임종식의 『생명의 시작과 끝』, 로렘나무, 1999, p.219-240에 논의되고 있으므로 참조.

22)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p.149-174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방위와 임신중절"을 참조.

그 후 프라이버시권 주장은 여성들의 낙태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론적 무기가 되어왔다. 트라이브(Tribe, 1992)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낙태권은 ‘기본적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낙태의 자유도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낙태의 자유란 가장 쉽게 풀이하여 ‘원치않는 어머니가 되지 않을 여성의 자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독특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 자유’라고 정의하였다.<sup>23)</sup>

다시 말해서, 낙태문제는 임신의 착취를 통해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라는 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극단적인 심리적 폭력이며, 임신의 계속을 명령하는 법은 여성의 자유와 사생활의 핵심을 빼앗는 것이므로 임신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는 개인적 사생활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여겨져야만 한다(must)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4)</sup>

### 3) 사회적·법적 인식의 모순

#### i) 사회적 인식의 모순

현대사회의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들에는 낙태,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인간 복제 등이 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낙태는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 특히 어린 청소년 계층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

23)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17권 제2호, 2001, p.78-79.

24) 도회근, "낙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미국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3호, 1997.

회 경제적인 면과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성개방과 향락 풍조 및 이에 편승한 각종 성적 매체의 범람 등으로 청소년의 성범죄와 혼전 임신 및 미혼 여성의 낙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문제는 산모나 그 주의 사람들의 사회적·심리적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아이의 천부적 생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산모를 위한 치료적 낙태나 강간, 근친상간 등의 사회적 낙태나 심한 기형이 예상되는 경우의 예측적 낙태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낙태도 인위적이며 자의적인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완전 무시하고서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릇된 일이다.<sup>25)</sup> 임신 초기에 태아에 대한 검사는 유전적 기형이나 선천적 질환이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성감별만을 위주로 하여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윤리적인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도덕적인 의료 형태와 잘못된 남아 선호 사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낙태 그리고 이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sup>26)</sup>

낙태의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아를 임신한 경우, 경제적 이유 등이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주로 미혼 여성이 임신한 경우이며, 여아를 임신한 경우 낙태 하는 것은 기혼 여성의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아의 경우 낙태 하는 것은 득남을 위한 선택적 유산이 성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 여성의 임신은 무조건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적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

25) 김진경,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32.

26) 김진경, 상계서, 1999, p.35.

우, 성의 문란이 10대 여성의 낙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태는 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혼모 문제, 고아 문제 등 많은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sup>27)</sup>

1994년 3월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sup>28)</sup>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타인의 임신의 경우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하며 가능하면 낙태를 하지 않고 키워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반면, 자신의 경우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한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낙태를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낙태를 더욱 부추기는 경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사업은 미혼모 발생을 더 조장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다.<sup>29)</sup> 단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한 윤락여성, 가출여성, 불우 미망인 등과 함께 보호여성으로 취급하여 부녀복지사업의 측면에서 상담과 시설보호를 통한 치료사업에만 치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혼모에 의한 낙태는 필연적으로 증가

---

27) 尹順愛, 전계서, 2001, p.33.

28) 김현철, 전계서, 2000, p. 83.

29) 김근조,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 29.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 낙태는 도덕적으로 그른 것으로 미혼모에 의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 법적 인식의 모순

### ㉠헌법상의 낙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중에서 낙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예방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최후 수단으로서의 형법적 제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나라에서 태아의 생명이 더 잘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엄격한 낙태법규를 지킬 수 없기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범죄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sup>30)</sup> 사문화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무수한 불법적 낙태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이 사실인 상황에서 만약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운이 나쁘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고, 사회일반인도 그러한 범법자를 오히려 동정하고 연대감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낙태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그 탐지와 수사가 곤란하여 압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현실이다.<sup>31)</sup>

그러나 이와 같은 범법행위의 만연은 철저히 못한 법집행에 기인한 측면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철저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인의 낙태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며 생명경외의 인간본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존중되는 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32)</sup>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낙태행위를

30) 정현미, “낙태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시민과 변호사, 2000, p.23-24.

31)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법학연구, 2003, p. 188-189.

규율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의 모색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우리 헌법에는 비록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생명권의 주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sup>32)</sup>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조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sup>34)</sup> 간혹 ‘우리나라 법(法)에서는 태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 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85.6.11.84도 1958)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

32) 이를 적극적 일반예방효과라고 볼 수 있다. (Friedrich-Christian Schröder, "Die Grenzen des Strafrechts bei der Abtreibung",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4호, 1993, p.44.

3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p.36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p. 38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p.334

34) 헌재결 1996, 11. 28, 95헌마1.

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 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35)</sup>(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 교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sup>36)</sup>(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 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sup>37)</sup>(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 ㉔ 형법상의 낙태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 관련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269조, 제279조

[낙태]

- ①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9)

36)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99)

37)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1998)

- ③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의사 등 의료인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2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 ⑤임부의 촉탁·승낙에 의하지 않은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 ⑥업무상 동의낙태치사상 및 부동의낙태치사상죄는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치사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제27장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낙태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낙태를 하는 부녀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태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낙태죄(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자를 상해·치사한 때가중 처벌하는 조항인 낙태치상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로 되어있다.<sup>38)</sup>

38) 「형법」상 낙태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성규, 『범여성학』, 제일법규, 1996.

①자기 낙태죄: 자기낙태죄의 주체는 임신한 부녀에 국한되며 객체는 살아있는 태아이다. 현행 헌법에서 낙태미 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기만 하면 낙태죄가 성립하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후에 살해하면 낙태죄와 살인죄(또는 영아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또한 낙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낙태는 처벌되지 않는다.

②동의낙태죄: 동의낙태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형법 제270조 1항의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 한 의사, 조산원 등은 제외된다. 부녀는 임신부를 말하며, 촉탁은 부녀가 낙태를 부탁하는 것이고 승낙은 시술자가 임신부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강요된 촉탁·승낙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된다. 낙태하게 하는 것은 시술자가 스스로 낙태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신부에게 낙태를 교사·방조하는 것은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③업무상 동의낙태죄: 주체는 법문에 열거된 자들(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에 국

여기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임부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인데, 임부의 자기낙태의 경우 낙태로 겪게 되는 행위자의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동의낙태죄의 경우보다 법정형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업무상 동의낙태죄를 일반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며,<sup>39)</sup> 업무상 동의낙태치사상과 부동의낙태치사상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도 그 불법의 질이 현저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또한 부동의낙태죄가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낙태치사상의 법정형이 폭행치사상의 경우보다 낮은 것도 입법론적으로 문제된다.<sup>40)</sup>

#### ㉔모자보건법상의 낙태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한되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예컨대, 치과의사, 수의사는 제외)

④부동의 낙태죄: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도 해당될 수 있다. 행위자는 부녀의 촉탁·승낙 없이 스스로 낙태행위를 하는 것이다. 부녀 몰래 하거나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촉탁·승낙 을 착오한 경우는 이 죄의 고의가 없고,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⑤낙태치사상죄: 낙태치사상죄는 결과적 과중범이다. 따라서 고의의 낙태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39) 모체의 보호면에서는 의사 등에 의한 낙태가 더 안전하다(유기천, 『형법학』, 1983, p73).

40) 이재상, 『형법각론』, 1989, p.99.

- b.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c.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 d.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e.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 a. 유전성 정신분열증
- b. 유전성 조울증
- c. 유전성 간질증

- d. 유전성 정신박약
- e.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f. 혈우병
- g.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h.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우리 모자보건법은 광범위하고 애매한 규정과 절차상의 허점을 남김으로써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한적인 면에서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의학적으로는 임신 후 28주 이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모자보건법 제2조 6호), 임신 후 22주 이후에는 인큐베이터(Incubator)에 의지할 경우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시기 이후의 낙태행위는 사실상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허용사유별로 낙태기간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도 기간에 따라 세분화시킬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요건조차도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왜냐하면 상기와 같은 모자보건법의 광범위하고 애매한 허용사유를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의사의 경제적 관심과 낙태자의 현실적 요

구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허용사유를 조작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허용사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사와 시술하는 의사를 제도적으로 분리할 것이 요청된다. 그래야만 허용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up>41)</sup>

## 2. 청소년의 낙태 실태 및 생명경시 현상

### 1) 청소년의 낙태 실태

최근의 한 중학생 성의식 조사 결과, 성경험 비율이 5.8%(남학생 7.5%)였고, 고등학생은 남고생 13.5%, 여고생 8.1%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통계수치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다”라면서 “대충 봐도 이성교제 하는 여자애들 10명 중 절반은 남자친구와 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학교 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주변 친구가 성관계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84.4%로 나타났다.<sup>42)</sup>

또한 최근 청소년의 출산과 낙태 등 청소년 성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출산 및 낙태 건수가 연간 10만 건에 이르며 그 연령층도 10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41) 배종대, 『형법각론』, 1995, p. 147.

42) 최순환, “성문화와 교육현장에서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창의력개발연구 제6호, 2003년, p.211.

지난 10월 4일에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10대 청소년의 병원분만은 6,730건에 이르며, 낙태 등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경우는 4만 4,7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무엇보다 전국의 개인·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1,927개 의료기관의 공식진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 시술 등을 이용한 것까지 합하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sup>43)</sup>

## 2) 청소년의 생명경시 현상

최근 마스크를 통해 10대 여성의 낙태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낙태가 성장기에 있는 10대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알려진바 있고 또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0대들의 임신은 청소년비행으로 인식되어있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낙태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력이 없고 도움을 받을 지원체계가 없는 10대들은 불법 시술소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생후 7일된 여아를 버린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으나,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남자친구와 공모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2004년 11월 15일자, 연합뉴스). 본인만 괜찮다면 아기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전환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의 임신을 약점으로 삼아 온갖 나쁜 행위를 시키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친구

---

43) 성결신문, 제387호, 2000년 10월 12일자.

의 배를 찬다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등도 ‘태아’라는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명경시 현상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얼마전 인터넷에 오른 낙태와 관련된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한가지는 임신을 한 여고생이 거리낌없이 친구들과 몰려오고 그 친구들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이에게 환송식하듯 “잘하고 와, 별것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목격담도 들어 있다. 이 간호사는 “개인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을 했다”며 “눈·코·입이 선명한 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괴로워했다.(2004년 12월 29일자,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버려지고 낙태되어 지는 아기가 본인이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Ⅲ. 청소년의 낙태에 관한 인식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은 낙태와 생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성의식

먼저, ‘이성친구가 현재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151명(14.7%),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665명(64.8%), ‘마지막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10명(20.5%)이었다. 그중 신체적 접촉은 안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명(6.5%)에 그쳤고, 700명(68.2%)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즉 신체접촉은 가능하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가능하다는 경우는 93.5%를 차지하였다.

<표3> 신체 접촉의 가능여부

			신체접촉			전체
			신체적 접촉 은 안된다	신체적 접촉 은 가능하다	정도에 따 라 다르다	
이성 친구	있다	빈도	2	44	105	151
		전체 %	2%	4.3%	10.2%	14.7%
	없다	빈도	41	154	470	665
		전체 %	4.0%	15.0%	45.8%	64.8%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빈도	24	61	125	210
		전체 %	2.3%	5.9%	12.2%	20.5%
전체		빈도	67	259	700	1026
		전체 %	6.5%	25.2%	68.2%	100.0%

( $\chi^2 = 20.330$ ,  $df=4$ ,  $p=.000$ )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혹은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경우 모두 전체 학생의 548명(53.4%)이 가장 보편적인 허용가능 범위

는 ‘키스’수준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포옹’을 응답하였으며, 전체 학생 중 32명(3.1%)의 학생들이 ‘신체적 접촉은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 보다 높은 74명(7.2%)의 학생들은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응답해 성관계에 있어서 좀더 개방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 신체 접촉의 허용범위

			허용범위						전체
			신체적 접촉은 안된다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	
이성 친구	있다	빈도	8	15	7	87	18	16	151
		전체 %	.8%	1.5%	.7%	8.5%	1.8%	1.6%	14.7%
	없다	빈도	16	84	154	355	22	34	665
		전체 %	1.6%	8.2%	15.0%	34.6%	2.1%	3.3%	64.8%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빈도	8	15	46	106	11	24	210
		전체 %	.8%	1.5%	4.5%	10.3%	1.1%	2.3%	20.5%
전체		빈도	32	114	207	548	51	74	1026
		전체 %	3.1%	11.1%	20.2%	53.4%	5.0%	7.2%	100.0%

( $\chi^2 = 60.444$ ,  $df=10$ ,  $p=.000$ )

‘성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54명(5.3%), 여학생의 경우 조금 적은 42명(4.1%)의 학생만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5> 성경험 유무 여부

			성경험		전체
			있다	없다	
성별	남자	빈도	54	459	513
		전체 %	5.3%	44.7%	50.0%
	여자	빈도	42	471	513
		전체 %	4.1%	45.9%	50.0%
전체		빈도	96	930	1026
		전체 %	9.4%	90.6%	100.0%

( $\chi^2 = 1.655$ ,  $df=1$ ,  $p=.198$ )

성관계에 있어서 피임기구의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의 결과 남녀학생 중 640명(62.4%)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한

다'라고 응답하였다. 남녀 학생들의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관계 시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377명(36.7%)으로 남학생 263명(25.6%)보다 114(11.1%)명이나 많았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62명(6%)으로 여학생 29명(2.8%)보다 2배가량 높게 응답하였다.

성관계시 그 피해 즉 임신의 직접적인 영향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고가 만연하며 현실 역시 그러하므로 피임기구의 사용은 여성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기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의 현상들이 조사 결과 청소년들에게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고 있는 것 같았다.

<표6> 피임기구 사용 여부

			피임기구				전체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가급적이면 사용한다	없으면 어쩔수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	남자	빈도	263	134	54	62	513
		전체 %	25.6%	13.1%	5.3%	6.0%	
	여자	빈도	377	84	23	29	513
		전체 %	36.7%	8.2%	2.2%	2.8%	
전체		빈도	640	218	77	91	1026
		전체 %	62.4%	21.2%	7.5%	8.9%	

( $\chi^2 = 56.222$ ,  $df=3$ ,  $p=.000$ )

## 2.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인식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은 전체의 434명(42.3%)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 직후부터'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10주 이후부터(신체구조의 완성)'였으며 전체의 245명(23.9%)을 차지하였다. 즉, 배아단계와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를 모두 합하여 뱃속에서부터 생명은 시작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949명(92.5%)이

었는데 반해 ‘탄생(분만)시’부터 생명은 시작한다고 응답은 학생은 77명(7.5%)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아가 말을 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은 배속의 태아시기부터 시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7> 생명의 시작시기

			생명시작				전체	
			정자와 난자의 수정 직후부터	배아단계 (14일)부터	10주 이후부터 (신체구조의 완성)	태동이 느껴질때부터 (5-6개월)		탄생(분만)시부터
성별	남자	빈도	203	95	135	29	51	513
		전체 %	19.8%	9.3%	13.2%	2.8%	5.0%	50.0%
	여자	빈도	231	116	110	30	26	513
		전체 %	22.5%	11.3%	10.7%	2.9%	2.5%	50.0%
전체		빈도	434	211	245	59	77	1026
		전체 %	42.3%	20.6%	23.9%	5.8%	7.5%	100.0%

( $\chi^2 = 14.581$ ,  $df=4$ ,  $p=.006$ )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아의 생명은 배속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봤을 때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전체의 956명(93.2%)의 학생들이 배속의 태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0명(6.8%)의 학생들은 배속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8> 태아의 고통여부

			고통유무		전체
			느낄수 있다	느낄수 없다	
성별	남자	빈도	474	39	513
		전체 %	46.2%	3.8%	50.0%
	여자	빈도	482	31	513
		전체 %	47.0%	3.0%	50.0%
전체		빈도	956	70	1026
		전체 %	93.2%	6.8%	100.0%

( $\chi^2 = .981, df=1, p=.322$ )

벳속의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직후’부터 생명이 시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달리 ‘10주 이후(신체구조의 완성)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5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표9> 태아의 고통시기

			고통시기					전체
			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부터	배아단계(14일)부터	10주 이후부터(신체구조의 완성)	태동이 느껴질 때부터(5-6개월)	7개월 이후부터	
성별	남자	빈도	66	67	234	89	18	474
		전체 %	6.9%	7.0%	24.5%	9.3%	1.9%	49.6%
	여자	빈도	33	112	241	79	17	482
		전체 %	3.5%	11.7%	25.2%	8.3%	1.8%	50.4%
전체		빈도	99	179	475	168	35	956
		전체 %	10.4%	18.7%	49.7%	17.6%	3.7%	100.0%

( $\chi^2 = 22.974, df=4, p=.000$ )

‘자신의 미래에 위해서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녀학생 모두 전체의 416명(40.5%)의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내게 좀 더 유용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2명(35.2%)인 것을 합하면 모두 778명(75.8%)의 학생들이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음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248명(24.2%)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10> 태아의 생존권

			태아생존			전체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성별	남자	빈도	162	141	210	513
		전체 %	15.8%	13.7%	20.5%	50.0%
	여자	빈도	200	107	206	513
		전체 %	19.5%	10.4%	20.1%	50.0%
전체		빈도	362	248	416	1026
		전체 %	35.3%	24.2%	40.5%	100.0%

( $\chi^2=8.689$ ,  $df=2$ ,  $p=.013$ )

### 3.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인식

낙태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남녀학생 모두 전체의 821명(80.0%)이 낙태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도 여학생들의 비율이 3%(31명)정도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표11> 낙태의 영향

			낙태영향		전체
			알고 있다	모른다	
성별	남자	빈도	395	118	513
		전체 %	38.5%	11.5%	50.0%
	여자	빈도	426	87	513
		전체 %	41.5%	8.5%	50.0%
전체		빈도	821	205	1026
		전체 %	80.0%	20.0%	100.0%

( $\chi^2=5.858$ ,  $df=1$ ,  $p=.016$ )

만약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이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남녀학생 모두 ‘원치 않는 임신(강간)’의 경우를 선택하였으며, ‘태아의 기형’을 알았을 경우는 가장 적은 32명(3.1%)

을 나타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가능하면 치료에 힘쓰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12> 낙태의 이유

			낙태이유					전체
			경제적인 사정	원치 않는 임신(강간)	태아의 기형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기타	
성별	남자	빈도	61	342	6	82	22	513
		전체 %	5.9%	33.3%	.6%	8.0%	2.1%	50.0%
	여자	빈도	18	397	26	59	13	513
		전체 %	1.8%	38.7%	2.5%	5.8%	1.3%	50.0%
전체		빈도	79	739	32	141	35	1026
		전체 %	7.7%	72.0%	3.1%	13.7%	3.4%	100.0%

( $\chi^2 = 46.064, df=4, p=.000$ )

‘혼인 전·후 어떠한 상황에서 낙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혼인 전인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남녀학생 모두 442명(43.1%)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혼인 전이든 혼인 후의 임신이든 상관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15명(30.7%)이었으나,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직접 산모가 될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낙태를 할 수 없다’는 학생들도 185명(18%)이나 응답해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태아 출산 후 직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음을 눈여겨 볼 만 하겠다.

<표13> 혼인 전·후 임신의 낙태가능 여부

			혼인전후					전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혼인전인 경우	남아인지 여아인지 성별 감식 후	어떤 경우라도 절대 할 수 없다	
성별	남자	빈도	173	31	194	6	109	513
		전체 %	16.9%	3.0%	18.9%	.6%	10.6%	50.0%
	여자	빈도	142	41	248	6	76	513
		전체 %	13.8%	4.0%	24.2%	.6%	7.4%	50.0%
전체		빈도	315	72	442	12	185	1026
		전체 %	30.7%	7.0%	43.1%	1.2%	18.0%	100.0%

( $\chi^2 = 16.923$ ,  $df=4$ ,  $p=.002$ )

성경험이 있다면 낙태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가 낙태를 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8명(0.8%), 여학생의 경우 본인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명(0.7%) 있었다.

<표14> 낙태 유무 여부

			낙태유무		전체
			있다	없다	
성별	남자	빈도	8	505	513
		전체 %	.8%	49.2%	50.0%
	여자	빈도	7	506	513
		전체 %	.7%	49.3%	50.0%
전체		빈도	15	1011	1026
		전체 %	1.5%	98.5%	100.0%

( $\chi^2 = .068$ ,  $df=1$ ,  $p=.795$ )

그렇다면 본인 자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낙태경험에 대해서 듣거나 혹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었다. 낙태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의견이 남학생의 경우 114명(11.1%),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조금 높은 167명(16.3%)으로 전체 학생의 281명

(27.4%)을 차지해 본인의 낙태 경험 남학생 8명(0.8%), 여학생 7명(0.7%)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본인의 경우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학교에서 설문이 행해짐으로써 담당 선생님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15> 간접적인 낙태경험 유무 여부

			낙태경험		전체
			있다	없다	
성별	남자	빈도	114	399	513
		전체 %	11.1%	38.9%	50.0%
	여자	빈도	167	346	513
		전체 %	16.3%	33.7%	50.0%
전체		빈도	281	745	1026
		전체 %	27.4%	72.6%	100.0%

( $\chi^2 = 13.767$ ,  $df=1$ ,  $p=.000$ )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할 것인가에 관한 상의는 ‘친구나 선배’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남녀학생 모두 ‘부모님’과 상의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535명(52.1%)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가 상의 대상이었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의견도 109명(10.6%)이었다.

<표16> 낙태 결정시 조언자

			낙태상의					전체
			부모님	선생님	친구나 선배	남자친구	본인의 의지에 따라(상의하지않는다)	
성별	남자	빈도	249	44	105	43	72	513
		전체 %	24.3%	4.3%	10.2%	4.2%	7.0%	50.0%
	여자	빈도	286	15	123	52	37	513
		전체 %	27.9%	1.5%	12.0%	5.1%	3.6%	50.0%
전체		빈도	535	59	228	95	109	1026
		전체 %	52.1%	5.8%	22.2%	9.3%	10.6%	100.0%

( $\chi^2 = 30.325$ ,  $df=4$ ,  $p=.000$ )

낙태를 행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의는 ‘부모님’과 하되고 의사결정권 자체는 ‘본인’에게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745명(72.6%)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본인(자신)’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09명(39.9%)인데 반해 남학생들은 ‘상대방(남자 친구 즉 자신)’에게도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명(3.2%)이었다. 성관계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여성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여성본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들도 많았다.

<표17> 낙태 결정시 의사결정권

			의사결정						전체
			본인	부모님	상대방(남자친구)	태아	시부모나 어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성별	남자	빈도	336	43	33	16	7	78	513
		전체 %	32.7%	4.2%	3.2%	1.6%	.7%	7.6%	
	여자	빈도	409	30	9	18		47	513
		전체 %	39.9%	2.9%	.9%	1.8%		4.6%	
전체		빈도	745	73	42	34	7	125	1026
		전체 %	72.6%	7.1%	4.1%	3.3%	.7%	12.2%	

( $\chi^2 = 37.988$ ,  $df=5$ ,  $p=.000$ )

<표18>타인이 당한 강간임신의 경우와 <표19>본인이 당한 강간 임신일 경우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타인의 경우 ‘낙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96명(67.8%)이였고, 자신의 경우에는 698명(68.0%)으로 그 차이는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나아서 키운다’와 ‘입양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는 경우에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다 강간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그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인지 여학생들은 ‘낙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학생들은 ‘입양한다’는 의견에서 여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18> 타인의 강간임신의 경우

			강간임신(타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 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 을 찾아본다 (입양)	
성별	남자	빈도	305	22	186	513
		전체 %	29.7%	2.1%	18.1%	50.0%
	여자	빈도	391	18	104	513
		전체 %	38.1%	1.8%	10.1%	50.0%
전체		빈도	696	40	290	1026
		전체 %	67.8%	3.9%	28.3%	100.0%

( $\chi^2 = 34.213$ ,  $df=2$ ,  $p=.000$ )

<표19> 본인의 강간임신의 경우

			강간임신(본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 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 을 찾아본다 (입양)	
성별	남자	빈도	311	23	179	513
		전체 %	30.3%	2.2%	17.4%	50.0%
	여자	빈도	387	27	99	513
		전체 %	37.7%	2.6%	9.6%	50.0%
전체		빈도	698	50	278	1026
		전체 %	68.0%	4.9%	27.1%	100.0%

( $\chi^2 = 31.617$ ,  $df=2$ ,  $p=.000$ )

태아가 기형일 경우 <표20>타인의 태아기형과 <표21>본인의 태아기형에서 두 경우 모두 다 ‘낙태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458명(44.6%), 557명(54.3%)으로 가장 높았지만, 강간임신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낙태해야 한다’는 의견 못지않게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는 의견도 각각 426명(41.5%), 317명(30.9%)으로 비록 태아의 기형을 알게 되었다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과 치료를 통해 태아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의 경우보다 타인의 태아기형의 경우 ‘낙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고, 나아서 키우거나 치료 혹은 입양등을 원하는 경향이 많았다.

<표20> 타인의 태아가 기형(다운증후군, 간질, 전염병 등)일 경우

			태아기형(타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	입양시킨다	
성별	남자	빈도	237	12	213	51	513
		전체 %	23.1%	1.2%	20.8%	5.0%	50.0%
	여자	빈도	221	24	213	55	513
		전체 %	21.5%	2.3%	20.8%	5.4%	50.0%
전체		빈도	458	36	426	106	1026
		전체 %	44.6%	3.5%	41.5%	10.3%	100.0%

( $\chi^2=4.710$ ,  $df=3$ ,  $p=.194$ )

<표21> 본인의 태아가 기형(다운증후군, 간질, 전염병 등)일 경우

			태아기형(본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	입양시킨다	
성별	남자	빈도	265	21	169	58	513
		전체 %	25.9%	2.0%	16.5%	5.7%	50.0%
	여자	빈도	292	22	148	50	512
		전체 %	28.5%	2.1%	14.4%	4.9%	50.0%
전체		빈도	557	43	317	108	1025
		전체 %	54.3%	4.2%	30.9%	10.5%	100.0%

( $\chi^2=3.315$ ,  $df=3$ ,  $p=.346$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출산 후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할 때 <표22>타인의 경우와 <표23>자신의 경우에는 ‘낙태해야한다’는 비율이 강간임신과 태아기형으로 인한 낙태에서 보다 그 비율이 훨씬

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비율을 보면 타인의 경우와 자신의 경우에서 각각 262명(25.5%), 322명(31.4%)이 응답을 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아기를 키울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과 ‘입양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기는 출산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인의 경우와 본인의 경우에서 별 차이 없이 764명(74.5%), 703명(68.6%)으로 각각 나타났다. 강간이나 태아기형은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는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이 많았다.

<표22> 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

			경제사정(타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입양)	
성별	남자	빈도	153	60	300	513
		전체 %	14.9%	5.8%	29.2%	50.0%
	여자	빈도	109	107	297	513
		전체 %	10.6%	10.4%	28.9%	50.0%
전체		빈도	262	167	597	1026
		전체 %	25.5%	16.3%	58.2%	100.0%

( $\chi^2 = 20.632$ ,  $df=2$ ,  $p=.000$ )

<표23>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

			경제사정(본인의 경우)			전체
			낙태해야 한다	나아서 키운다	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입양)	
성별	남자	빈도	179	57	277	513
		전체 %	17.5%	5.6%	27.0%	50.0%
	여자	빈도	143	115	254	512
		전체 %	14.0%	11.2%	24.8%	50.0%
전체		빈도	322	172	531	1025
		전체 %	31.4%	16.8%	51.8%	100.0%

( $\chi^2 = 24.578$ ,  $df=2$ ,  $p=.000$ )

#### 4. 청소년의 낙태법에 대한 인식

<표24>에서 보듯이 낙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명(53%)으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낙태의 범죄성 여부

			낙태법		전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별	남자	빈도	236	277	513
		전체 %	23.0%	27.0%	50.0%
	여자	빈도	308	205	513
		전체 %	30.0%	20.0%	50.0%
전체		빈도	544	482	1026
		전체 %	53.0%	47.0%	100.0%

( $\chi^2 = 20.285$ ,  $df=1$ ,  $p=.000$ )

또한 현행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으며 처벌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학생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보다 ‘지금처럼 현실과 법의 융통성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6명(61%)으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자신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처지 역시 고려한 결과라 볼 수 있었다.

<표25> 낙태처벌 여부

			낙태처벌		전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알맞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실과 법의 통성에 따라야 한다	
성별	남자	빈도	203	310	513
		전체 %	19.8%	30.2%	50.0%
	여자	빈도	197	316	513
		전체 %	19.2%	30.8%	50.0%
전체		빈도	400	626	1026
		전체 %	39.0%	61.0%	100.0%

( $\chi^2 = .148$ ,  $df=1$ ,  $p=.701$ )

현행 우리나라 모자 보건법에서는 낙태시기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만약 다시 법을 제정한다면 낙태시기를 언제까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 대다수의 학생들이 ‘28주라는 기간은 태아가 거의 성장을 완성해갈 때쯤이므로 너무 길며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사표현과 함께 ‘배아단계’로 2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낙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52명(3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한 날로부터 10주까지’를 가장 적절하게 보는 의견이 325명(31.7%)으로 ‘배아단계’와 비슷하게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 즉 가급적이면 단 시간 내에 태아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39명(13.5%)이었다.

시기에 상관없이 산모가 원하면 언제나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37명(13.4%)있었다.

<표26> 낙태법 수정시 낙태의 적절한 시기

			낙태시기					전체
			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	배아단계 (14일)까지	임신한 날로부터 10주까지(신체구조의 완성)	태동이 느껴질때 까지(5-6개월)	시기에 상관없이	
성별	남자	빈도	97	147	146	32	91	513
		전체 %	9.5%	14.3%	14.2%	3.1%	8.9%	50.0%
	여자	빈도	42	205	179	41	46	513
		전체 %	4.1%	20.0%	17.4%	4.0%	4.5%	50.0%
전체		빈도	139	352	325	73	137	1026
		전체 %	13.5%	34.3%	31.7%	7.1%	13.4%	100.0%

( $\chi^2 = 50.561$ ,  $df=4$ ,  $p=.000$ )

## 5.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님이 계신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정도는 어떤가를 알아보았다. 요즘에는 부부들의 이혼으로 인해 편부, 편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질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 상처를 입을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함께 사는 가족사항의 여부를 주관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결과와는 달리 그 정도의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27>에서와 같이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계신 청소년들의 가정에서도 평소 자녀들에게 낙태나 임신 그리고 생명 등 성(性)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37.9%를 차지하였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28.4%로 성(性)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교육은 가정에서도 역시 수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27> 부모님 유무 및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에서					전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신다	TV나 매체에 기사화된 내용이 있을때 가끔 이야기 하신다	자주 이야기 해주신다	궁금한 점은 물론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신다	
부모 남유	엄마, 아빠 모두 계심	반도	389	291	283	15	10	988
		전체 %	37.9%	28.4%	27.6%	1.5%	1.0%	96.3%
	엄마만 계심	반도	4	4	1		4	13
		전체 %	.4%	.4%	.1%		.4%	1.3%
	아빠만 계심	반도	3	9				12
		전체 %	.3%	.9%				1.2%
	엄마, 아빠 모두 안계심	반도	9		2		2	13
		전체 %	.9%		.2%		.2%	1.3%
전체		반도	405	304	286	15	16	1026
		전체 %	39.5%	29.6%	27.9%	1.5%	1.6%	100.0%

( $\chi^2 = 111.913$ ,  $df=12$ ,  $p=.000$ )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933명(90.0%)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중 교육을 받은 장소는 대부분의 학생들(778명/75.8%)이 ‘학교’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기타 교육시설로 봉사활동 단체나 YMCA, 성관련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들도 44명(4.3%)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학생들도 93명(9.1%)이나 있었는데,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에 관련된 윤리교육이 얼마나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상 학교에서 생명윤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혹은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의 교육이 기억에 남지 않았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이었다.

<표28> 생명윤리 교육 및 교육장소

			교육장소						전체
			가정	학교	교회	인터넷	기타 교육 시설	생명윤리 교육받은 경험없다	
교육유무	있다	빈도	23	778	32	56	44		933
		전체 %	2.2%	75.8%	3.1%	5.5%	4.3%		90.9%
	없다	빈도						93	93
		전체 %						9.1%	9.1%
전체		빈도	23	778	32	56	44	93	1026
		전체 %	2.2%	75.8%	3.1%	5.5%	4.3%	9.1%	100.0%

( $\chi^2 = 1026.000$ ,  $df=5$ ,  $p=.000$ )

생명윤리교육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의견과 비슷하게 낙태에 관련된 내용역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61명(64.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낙태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36명(13.3%)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책에서 혹은 친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소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TV’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표29> 낙태 정보원

			지식획득						전체
			책	학교에서의 성교육	친구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인터넷	기타	
성별	남자	빈도	26	320	32	2	77	56	513
		전체 %	2.5%	31.2%	3.1%	.2%	7.5%	5.5%	50.0%
	여자	빈도	12	341	13	17	59	71	513
		전체 %	1.2%	33.2%	1.3%	1.7%	5.8%	6.9%	50.0%
전체		빈도	38	661	45	19	136	127	1026
		전체 %	3.7%	64.4%	4.4%	1.9%	13.3%	12.4%	100.0%

( $\chi^2 = 29.843$ ,  $df=5$ ,  $p=.000$ )

학교 수업 과정에 생명윤리교육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가에 대해서 남녀학생들은 이제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302명(30.1%)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막연하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고, 무조건적으로 성행위에 대해 숨기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열린 교육으로 건전한 성생활과 그에 따른 피임법 등에 대해서도 미리 습득하게 해 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각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들도 많았는데, 이론을 중심으로 한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실제 있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한결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태껏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 식상했다’는 내용과 함께 ‘변화한다 해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혹은 ‘형식적인 그 내용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인터넷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등 학교에서의 교육에 실망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30> 희망하는 생명윤리 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

		희망하는 생명윤리교육의 내용 및 수업방법							전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	실제있었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배우고 싶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자세 내용을 알고 싶다	사전한 성생활과 피임법	기타		
성별	남자	빈도 169	31	28	100	124	61	513	
	전체 %	16.8%	3.1%	2.8%	10.0%	12.4%	6.1%	51.1%	
	여자	빈도 133	69	37	156	40	56	491	
	전체 %	13.2%	6.9%	3.7%	15.5%	4.0%	5.6%	48.9%	
전체		빈도 302	100	65	256	164	117	1004	
		전체 %	30.1%	10.0%	6.5%	25.5%	16.3%	11.7%	100.0%

( $\chi^2 = 75.020$ ,  $df=5$ ,  $p=.000$ )

## 6. 조사결과

1) 청소년의 정의식에 있어서 신체적인 접촉의 가능여부는 ‘신체적 접촉은 안된다’라는 응답은 6.5%(67명)에 그쳤고, 68.2%(700명)의 학생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즉 신체적 접촉은 가능하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과 함께 본다면 93.5%를 차지하였다. 또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범위에서는 이성친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의 53.4%(548명)의 학생들이 ‘키스’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응답했고, 3.1%의 학생이 ‘신체적 접촉은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 보다 많은 7.2%의 학생들은 ‘성관계’도 가능하다 라고 응답해 성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5.3%(54명), 여학생의 경우 4.1%(42명)이었고, 성관계시 피임기구 사용여부에 있어서는 남녀학생 전체의 62.4%(640명)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나 남녀각각의 비율을 보면 여학생(36.7%)이 남학생(25.6%)보다 11.1%(114명) 더

높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학생(6%)이 여학생(2.8%)보다 2배가량 높았다. 성관계시 그 피해 즉 임신의 직접적인 영향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고가 만연하며 현실 역시 그러하므로 피임기구의 사용은 여성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의 현상들이 조사 결과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졌다.

2)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서는 먼저 생명의 시작 시기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 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42.3%(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주 이후부터(신체구조의 완성)’라고 응답한 학생이 23.9%(245명)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태아가 말을 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은 배속의 태아시기부터 시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아의 고통여부에서도 ‘고통을 느낀다’는 응답이 93.2%였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시기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직후’부터 생명이 시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달리 ‘10주 이후(신체구조의 완성)’부터 라고 응답이 학생이 49.7%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생명의 시작과 고통의 시작시기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5.8%의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3)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먼저 ‘낙태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의 80%의 학생들이 낙태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간강)’의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다. ‘혼인 전 · 후 임신의 낙태가능 여부’에서는 ‘혼인전인 경우’에는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3.1%였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다음으로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혼인 전이든 혼인 후든 관계없이

낙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1.5%(15명)만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친구나 선배 혹은 주변의 또래들에게서의 낙태 경험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4%(281명)였다.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보는 앞에서 설문이 행해짐으로써 담당 선생님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신시 낙태 여부의 상의 대상’으로는 ‘부모님’과 상의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52.1%였고 다음이 ‘친구나 선배’로 22.2%를 차지하였다. 낙태에 있어서 ‘의사결정권’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의는 ‘부모님’과 하되, 그 의사 결정권 자체는 본인에게 있다는 응답이 72.6%로 월등히 높았다.

또한 강간, 태아기형, 경제적 사정의 3가지 경우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타인이 당한 경우(67.8%)와 본인의 경우(68%)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낙태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태아기형의 경우 타인의 태아기형(44.6%)과 본인의 태아기형(54.3%)에서 모두 다 ‘낙태해야한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강간임신의 경우보다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낙태해야한다’는 비율 못지 않게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는 의견이 각각 41.5%, 30.9%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과 치료를 통해 태아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서는 각각 ‘낙태해야한다’는 비율이 25.5%, 31.4%로 강간이나 태아기형보다 훨씬 낮아졌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아기를 키울 것’ 혹은 ‘입양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기는 출산해야 한다’고 응답이 학생이 타인의

경우이든 본인의 경우이든 별 차이 없이 74.5%, 68.6%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태아기형은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는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이 많았다.

4) 청소년의 낙태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는 학생들이 53%로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47%)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의 처벌여부에서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9%, ‘현실과 법의 융통성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자신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의 여부를 염두에 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낙태법을 다시 제정한다면 ‘낙태 시기’는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모자 보건법에서 28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태아가 거의 성장을 완성해갈 때쯤이므로 너무 길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배아단계’로 임신 후 2주일정도의 기간안에 낙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높았으면 ‘임신한 날로부터 10주까지’라는 응답이 31.7%로 배아기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즉 가급적이면 단 시간 내에 태아에게 고통을 적게 줄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5)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가정에서 교육정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평소 자녀들에게 낙태나 임신, 그리고 생명 등 성(性)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37.9%였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경우가 28.4%로 성(性)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교육이 가정에서도 수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性)을 비롯한 생명윤리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0.9%였고, 교육의 장소는 75.8%가 ‘학교’라고 응답했으나, 사

실상 학교에서의 교육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으며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학생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낙태’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도 역시 ‘학교’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이 13.3%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TV’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원은 학교가 아니라 인터넷과 TV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생명윤리 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에 대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았고, 막연하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임신과 낙태(25.5%)’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고, 무조건적으로 성행위에 대해 숨기려 하기 보다는 ‘건전한 성생활과 그에 따른 피임법(16.3%)’ 등에 대해서도 미리 습득하게 해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각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있었던 상황들은 학생들이 직접 ‘역할극’을 통해 사고해 본다면, 그에 따른 기사를 중심으로 토론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한결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IV.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명교육 모색

### 1. 가정에서의 교육

#### 1) 가정교육의 실태

흔히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성을 금기시하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냥 덮어두려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가정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은 흔히 성은 동물적인 것이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에 대해서 쑥스럽다거나 나쁘다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즉, 감추는 성에서 드러내는 성으로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필요하다. 성문제에 관한 한 ‘우리 아이가 설마’하는 생각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을 도피하기보다는 자녀 성장의 변화를 현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sup>44)</sup>

임미림·변영순의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2002)”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자녀 성교육 경험은 49.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는 50.4%였다.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몰라서(16.8%)라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므로 라는 응답도 15.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성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고

---

44) 최순환, 전계서, 2003, p. 218.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가정 내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교육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은 가부장적 성문화로 인하여 남녀 차별적이고 성적 고정관념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모색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자신이 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가진 성문화가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포괄적으로 자신들이 가져온 인간관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45)</sup> 또 아이들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언어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모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들이 성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부모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부모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모여야 하고 조건 없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실한 부모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성교육은 유아기 이후 어린아이가 질문을 할 때부터 시작되어 사춘기 말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

---

45) 최은아,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29-30.

이다. 왜냐하면 유아기부터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성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교육은 유아기 이후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크다. 이러한 성교육의 단계를 알아보면 만 3세 내지 4세의 아이들은 이미 성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된다.<sup>46)</sup>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남녀 사이의 해부학적 차이나 아기의 출생 경로를 자주 묻곤 한다. 이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교육시킬 좋은 기회이다. 또한 성을 존중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sup>47)</sup>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적지식과 견해, 그리고 신념뿐 아니라 태도까지도 전달한다. 부모의 가치관과 성태도는 혼전성관계나 임신의 기회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모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쳐야 하며, 가족관계의 질은 청소년기의 성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 학교에서의 교육

### 1) 학교교육의 실태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지겨워서 잠으로 때워 버렸고’ 그래서 ‘한번 들으면 알 내용을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해서 울귀떡으니까 성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성을 더 음지로 모는 것 같다’고 개탄한다. 무조건 하지마라식의 교육이나 남자를 짐승처럼 몰아붙이는 교육은 더 이상 싫다고 한다.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교육은 자극적인 것을 원했기 때문에 재미없었을지 모른다’고 나름대로

46)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부인과학』, (서울:칼빈서적, 1997), p.1460.

47) 김진경, 전계서, 1999, p.49.

분석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대치는 높는데 여건과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교육시간은 밀린 잠을 자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하거나,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비디오로 성교육시간을 메우는 수 밖에 없다. 영상자료도 시사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것들만 있고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sup>48)</sup>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지식과 성태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49)</sup> 뿐만 아니라 성교육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대상이 지원자에 한정되어 있거나, 교육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너무 짧거나, 교육내용이 생리적인 것과 이성교제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시킨 경우는 드물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sup>50)</sup>

특히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10시간 내외의 성교육 필수시수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성교육을 하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교과(도덕, 사회, 과학, 기술, 가정, 체육 등) 및 특별활동 등을 통해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48) 정연희, “성문화 변화에 따른 남학생 성교육 방향 모색”,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09.

49) 김성애·전명희,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서울:또 하나의 문화), 2000.

50) 최순환, 전계서, 2003, p. 218.

그 중 도덕과의 제 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제6차 도덕·윤리 교과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I . 삶 과 도덕	1. 인간의 삶과 도덕 2. 도덕적 사고와 신념 3. 청소년기와 중학교 생활	I . 가 치 와 도 덕 문 제	1. 삶의 목표와 가치 2. 삶의 다양한 가치갈등 3. 가치 선택과 도덕판단	I . 바 람 직 한 삶	1. 삶의 보람과 설계 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3. 근본적인 삶의 자세
II . 가 정 과 학 교 생 활 예 절	1. 가정과 학교생활의 의미 2. 가족, 친족, 이웃간의 예절 3. 학교생활의 예절	II . 가 정 이 윗 학 교 생 활 과 도 덕 문 제	1. 가정생활과 도덕문제 2. 이웃생활과 도덕문제 3. 학교생활과 도덕문제	II . 가 정 이 윗 학 교 생 활 과 도 덕 문 제	1. 바람직한 가정생활 2. 조화로운 이웃생활 3. 학교생활의 보람
III . 사 회 와 도 덕	1.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2.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3. 현대사회의 공중도덕	III . 현 대 사 회 와 도 덕 문 제	1. 현대사회와 환경문제 2. 현대사회의 청소년 문화 3. 사회적 도덕문제의 등장과 해결	III . 민 주 사 회 와 도 덕	1. 민주사회와 인간존중 2. 민주적 태도와 생활양식 3. 복지사회와 경제윤리
IV . 국 가 와 민 족	1. 민족의 발전과 문화창달 2. 나라의 중요성과 나라발전 3.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IV . 민 족 통 일 문 제 와 북 한 의 현 실	1.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2. 북한의 현실 3. 남북한 통일 정책	IV . 민 족 의 통 일 과 한 국 의 미 래	1. 민족 공동체의 반영 2. 통일 국가의 실현 3. 세계속의 한국인

<표 32> 제7차 도덕·윤리 교과과정

	주요가치·덕목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개인 생활	생명존중 성실,정직 자주,절제	1. 삶의 의미와 도덕 2. 개성신장과 인격도야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2) 생명은 왜 소중한		1. 삶의 설계와 가치추구 2. 인간의 삶과 가치갈등 3. 도덕문제와 도덕판단	

		한가?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가정 이웃 학교 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	1. 행복한 가정 2. 친족간의 예절 3. 이웃간의 예절 4. 학교생활예절		1. 진로·진학과 도덕 문제 2. 가정·친척·이웃생활과 도덕문제 3. 학교생활과 도덕 문제	
사회 생활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1. 현대사회와 전통 도덕 2. 현대사회와 시민 윤리 3. 민주적 생활태도 4. 생활속의 경제윤리		1. 현대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문제 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 구
국가 민족 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통일 인류애		1. 민족발전과 민족 문화창달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3. 올바른 애국·애족 의 자세 4.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1. 민족분단과 남북 한 사회현실 2. 남북한의 통일정 책과 통일의 과제 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표 31> 6차 교육과정에 와서 이데올로기 단원의 삭제와 민족 교육 내용의 강화, 생명 존중, 환경, 과학과 윤리의 신설, 전통윤리에 대한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의 강조, 근로와 직업 교육 및 경제 윤리와 직장 윤리의 중시의 지도 내용이 체계화 되었으며, 지도 방법 및 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교과 교육학적 관점에서 윤리과의 체계성을 정립했다.<sup>51)</sup>

그러나 6차 교육과정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는 물론 낙태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생명의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표 32>에서와 같이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의 도덕·윤리과의 교

51)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p.28.

과서를 살펴보면, 7학년 과정 중 개인생활의 ‘3. 인간다운 삶의 자세’의 ‘(2)생명은 왜 소중한가’에서 생명이란 소중한 것이며, 경이로운 것이라는 것과 생명 존중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명 존중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간 생명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서서히 교과 과정 속에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sup>52)</sup>

## 2)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모색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그동안 교사들이 잡지나 음란 만화 같은 것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청소년에게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성교육에서 성에 대한 정보·왜곡된 지식을 그릇된 것과 옳은 것으로 여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욕망에 대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피임방법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내용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많았으나 실제적인 성교육인 위생, 낙태, 피임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이 낙태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신적 침체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52) 윤순애,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8

또한 성교육은 성교육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에 투입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귀착되어야 하므로 모든 교과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sup>53)</sup>

교육 장소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수업이 교실 내지 강당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역할극을 하거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교육만을 위한 전용 교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역할극을 통해 대본을 작성하고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단순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 심각성을 느끼고 반성하며 성의식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을 심어줌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현실적인 성교육	⇒	성에 대한 정보·왜곡된 지식을 그릇된 것과 옳은 것으로 여과할 수 있는 능력교육
2. 체계적인 성교육	⇒	단약의 경우를 대비한 피임방법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3. 성교육 :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에 투입	⇒	성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를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교육
4. 교육의 장소	⇒	교실 내지 강당 등에서의 수업을 탈피하여 전용 교실 마련
5. 수업방식	⇒	이론식 수업뿐 아니라 역할극, 자료화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고 반성하며 성의식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을 심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53) 김창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읽는 위기의 교육 위기의 아이들』, 인간과 자연, 1997, p. 28-29.

### 3. 사회(대중매체)에서의 교육

#### 1) 대중매체 유해성의 실태

200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학생 8,157명 중 컴퓨터 음란 CD나 인터넷의 음란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0.3%였고, 본적이 없는 학생은 39.1%였다. 음란물을 주로 보는 매체는 인터넷이 50.9%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케이블 TV, 비디오 잡지 등을 선택했다.

공중파 방송의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의 선정성과 케이블 TV에서는 24시간 성인방송만을 내보내는 채널도 있으며, 인터넷의 음란사이트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인용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성인전용 사이트 마음대로 이용한다고 한다. 더구나 음란 인터넷 방송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 예로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음란 방송을 제공하여 청와대 사이트를 방문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청와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sup>54)</sup>

청소년들은 공식영역에서 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가지거나 올바른 성지식을 풍부하게 접하게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성에 대한 정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주로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통로는 또래집단이나 선배 등에 의한

54) 최순환, “성문화와 교육현장에서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창의력개발연구 제6호, 2003, p.214-215.

것인데, 이들이 성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많은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기술과 정보화시대의 주류인 인터넷 즉 사이버공간상의 문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고,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흔히 인터넷의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완벽히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이른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 인터넷의 음란물 유통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55)

또한 요즘의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문화생활 중의 한가지인 영화에서도 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고생의 임신과 출산을 다룬 국내 영화가 잇따라 제작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고생 시집가기’는 16세 생일을 앞둔 고교생 남녀가 ‘합방’을 한다는 내용으로 임신한 여고생 ‘평강’은 교실에서 수업 중 양수가 터지고 옆에 있던 친구는 “평강이 오줌 샀대요” 하고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는 남녀 고교생의 구체적 동침 장면은 묘사하지 않지만, 주인공 남녀 얼굴 모양의 토끼 두 마리를 등장시키고 그중 남자 토끼가 연방 방아를 찧어대는 모습으로 성행위를 비유했다.

이 영화는 ‘16세 전에 결혼하고 1년 안에 출산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점괘를 여주인공이 어려서 받았다는 설정을 통해 ‘합방’을 합리화한다.

‘돈 텔 파파’에는 주인공인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여고생이 갓 낳은 아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고교생 아빠가 수업 받고 있는 교실로 ‘배달’시키는 장면이 이어진다.

---

55) 김창남, 『대중문화』, 성공회대학교, 1998.

이 두 영화는 모두 직접적인 베드신 장면을 묘사하지 않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상 관람 가’ 등급을 받았다.

2005년 2월 개봉 예정인 ‘제니, 주노’는 ‘세계 최연소 엄마, 아빠’ ‘15세 몰래 부부의 아기수호 감동프로젝트’ 등의 광고카피를 내걸며 15세 남녀 중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다루고 있다. ‘어린 신부’의 제작사인 켈처캡미디어가 제작 중인 이 영화는 중학교 2학년 커플이 실수로 임신한 뒤 자신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고 출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 블로그 게시판에는 “15세의 임신과 출산을 소재로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는 상술”, “청소년의 성행위를 미화해 청소년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비판론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이런 소재도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들은 애 가지면 안 된다”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현실이 슬프다”는 등의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2세 이상 관람 가’로 등급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제작사 켈처캡미디어 최순식 대표는 “청소년 임신은 엄연한 사회문제가 됐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피임법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영화는 ‘임신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적 목소리를 청소년들에게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문 상명대 예술대학장(영화평론가)은 “초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다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묘사했느냐에 있다”며 “성장과정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고, 청소년 문제를 빙자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런 결정의 최종 책임은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sup>56)</sup>

## 2) 바람직한 대중매체 교육의 모색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관심을 무조건 억제시키기보다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하여, YMCA, 청소년 회관 등의 여러 사회 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과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바람직한 성문화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최근 청소년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성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의 관심, 즉 청소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선전이나 TV방영 등은 절제 되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의 유해한 환경을 정비해 주는 등의 협조체제 아래에서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과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sup>57)</sup>

또한 사이버 상에서 임신/피임 영역의 질문자들에게 주는 성교육 내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피임 영역의 질문자들은 대부분 성경험을 한 학생들로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상담자는 질문에 대한 답, 정서적 반응과 함께 이 학생들에게 맞는 성교육내용을 만들어 같이 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교육 내용에는 청소년시기의 성관계 후유증, 성관계의 책임성, 피임의 중요성,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답과 함께 보낸다면, 그들의 문제에 맞는 성교육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 중 대표적으로 ‘사랑 나눔회’를 들 수 있는데, ‘사랑 나눔회’는 혼전 순결, 자연 피임,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자연적 가족계획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인터넷 사이트

56) 동아일보, 2004. 12. 24.

57) 박영순, “청소년의 성 의식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 50.

'<http://www.sun21.org>'로 들어가면 생명의 잉태에서 탄생까지의 과정을 이해 하기 쉽게 만화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성과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을 비롯해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EBS에서는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8월 25일까지 우리 시대의 성(性)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청소년 성매매, 미혼모, 사이버섹스, 인터넷 음란물, 청소년 순결교육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방송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 V. 결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가치도 능가할 만큼 절대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태아 역시 인간 발달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 존재로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낙태는 도덕적으로 명백히 그른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낙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성도덕관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임신과 낙태가 문제이다. 낙태는 한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그러한 생각이 더 발전되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되어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국 낙태에 대한 도덕불감증은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기 쉽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생명 윤리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가치관의 혼란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성의 올바른 의미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구체적인 성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무지 속에 일어나는 임신과 낙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 사회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그로 인해 성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낙태문제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혹은

타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낙태의 반대 입장에 있는 비율이 높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당연히 낙태해야 한다는 경우가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 머리에 주입만 시켰을 뿐 진정으로 소중함을 깨닫게 하지 못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으며,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이며 식상한 내용 대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딱딱하고 지루한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의 자료들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자신의 일인마냥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교육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수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대로 오면서 점차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는 상품화된 성으로 인해 멩들어가는 청소년들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피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 성윤리 교육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험이나 문제의 변화에 그 보폭을 맞추어야 한다. 즉, 점차 다양해지고 개인적으로 흐르는 성가치관과 약해져가는 성윤리 그리고 돌연변이적인 성태도와 성 정보들이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토대로 바르게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훈

련이 지속적인 교육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확실한 성 윤리기준을 정하고 청소년들에게 허용할 것과 통제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청소년들도 적응하기 쉽고 가정, 학교, 사회, 규범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시행되는 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서로 미루지 말고 힘을 합쳐 시작하고 교육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성숙하게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건강하고 성숙된 청소년들이 내일의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 <단행본>

- 교육부,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모형 개발』, (2000)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구성애, 『구성애의 성교육』, (서울:석탑,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2000)
- 김귀식, 『중등교육에서의 생명교육』, (서울:생명연구, 1994)
- 김병곤, 『人間의 尊嚴』, (서울:교육과학사, 1996)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2000)
- 김재운·최진택, 『현대인의 윤리학』, (서울:대영문화사, 1997)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99)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부인과학』, (서울:칼빈서적 1997)
-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낙태』 (서울:두란노서원, 1990)
- 마루호 브로디 저, 황경식 역, 『응용윤리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2000)
- 소병욱, 『생명윤리』, (서울:분도출판사, 1996)
- 소성규, 『법여성학』, (서울:제일법규, 1996)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동복지편람』, (서울:정문출판주식회사, 1997)
- 안재정, 『중고생 성교육과 상담』, (서울: 복지문화사, 1984)

-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서울:로템나무, 1999)
-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학교』, (또 하나의 문화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0)
- 지은희,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 진교훈 외, 『윤리학과 윤리교육』, (서울:경문사, 1997)
- 최현 외 3인 공저,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2)
- 추병완 외,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인간사랑, 2000)
- 피터싱어 저, 황경식·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1)
- 한국부모교육학회, 『성교육학』, (서울:교육과학사, 1998)
- 한상철외 공저, 『청소년 문제행동』, (서울:학지사,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2000)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2000
-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7)

### <논문 및 학술지>

- 강영선·이정주, “생명윤리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분석”, 대한민국학술 논문집 제33집.
- 강재성, “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고찰과 현황”, 기독교사회윤리 제2집, 1999.
- 김근조,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기태, “청소년유해환경개선대책에 관한 연구-유해영상매체의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청소년학회, 1992.
- 김상원 외,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서울:한국성문화연구소.
- 김옥순,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컴퓨터 음란 영상물 접촉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 김정옥, “생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연구Ⅱ”, 사회과학연구 제7집 제2호, 1999.
- 김진경,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현철, “한국의 낙태 현실”, 상담과 선교 제8권 제3호, 한국상담선교연구원, 2000.
- 도회근, “낙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미국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3호, 1997.
- 모자보건법(1973년 2월 8일 법률 제 2541호)제2조 4항.
-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17권 제2호, 2001.
- 신형광, “생명의 윤리”, 기독교교육연구 제5집 제1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1994.
- 오정진, “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여성과 사회 제8권, 한국여성연구회, 1997.
- 윤상진, “중학교 성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尹順愛,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仁川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 윤순애,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2001.
- 이기현·정미현,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李峻錫,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낙태문제",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 이운만, "청소년 성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장형,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 2002.
- 이춘재,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 91 MBC 청소년 백서, 1997.
- 임민택, "남녀 고교생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전광문, "청소년 성문제 실태와 대책", 청소년 연구 제38호, 서울 한국청소년 연구원, 1987.
- 정규원,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적 문제", 韓法誌 제24권 제2호, 2000.
- 최충옥, "청소년 유해 전자출판물 접촉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997.
- 한상희, "사생활의 권리 : 생활정치를 위한 비판적 수사·낙태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제26집 제1호).
- 한춘기, "신학적 윤리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 기독교교육연구소, 1994.
- 함석우, "대중매체(Mass Media)가 청소년의 성윤리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윤리학 감리교신학대 석사학위논문, 1999.

- 국외문헌 -

c. Everett Koop and Francis A. Schaeffer,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Westchester, III. :Crossway Book, 1983.

Grant, George, Grand Illusion, "The Legacy of Planned Parenthood", BrentWood, Tenn. : Wolgemuth and Hyatt, 1988. ; 김종배, "낙태, 그 시작과 끝", 두란노서원, 1990.

J. D. Barklay, A. Forsythe, T. L. Parker, "Abortion Methodologies : Frequency and Risk", The Medical Life-Line, March 1986. ;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3년 3월.

McCabe M. P. & Cummins R. A,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young people", Adolescence, Vol 33, 1998.

Rollins, J., White, P.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ex-Role Attitudes and Self-Concepts in Three Types of family Environment. Sex-Roles, 1982. ; 정중희,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S. K. Henshaw and K. O'Reilly, "Characteristics of Abortion Patients in the U.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5: 1, Jan/Feb, 1985. ;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3년 3월.

##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eenager's Abortion And the Better Ways Of Sex Education - Targeted At Middle and High Schoolers In Seoul -**

**Yang, sun young**

**Major in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Women's University**

Teenage pregnancy rates are soaring with the proliferation of free sex and rapid inflows of obscene and indecent materials. These developments bring forth illegal 'abortion' by teenagers and result in the serious rise of deaths of unborn children. This also demonstrates wrong awareness of teenagers on sex and the trends of disregarding 'life'.

This paper is to figure out a prevailing thought among younger generations on abortion and awareness of life and seek any appropriate method to tackle this problem in the levels of family, school, and socie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1. With respect to awareness of sex, they are open minded to physical contact with heterosexual partners although the extent of the contact may differ. Generally, they see 'kiss' as reasonable and proper. 9.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With regard to use of contraceptive means, 83.6% responded that they would use them by all means or would use as much as possible.

2. Concerning their awareness of life, most of them said that life begins upon settlement of a sperm on an ovum. In particular, 93.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any fetus feels pains. Many of the respondents think the time of feeling pains begins 10 weeks after conception.

3. In connection with juvenile awareness on abortion, 80% responded that they know well the consequences. Most of students point out 'unwanted pregnancy (by assault)' as necessary condition to justify abortion. Only 1.5% said that they underwent abortion, while those having indirect experiences on abortion account for 27.4%. However, they show differing views on pregnancy by assault, malformed embryo, and financial situations.

4. With respect to their awareness on the Anti-Abortion Act, 53% responded they knew it. But many of them seem to want that legal enforcements should treat the issue more flexibly.

5. Concerning their awareness on sex education, they look like getting wisdom and knowledge on sex from mass media like the 'Internet' and 'TV', rather than family. They hope to make themselves aware of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rough practical eudcation programs.

Teenager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obscene materials and become vulnerable to early pregnancy and subsequent abortion. Therefore, ou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must be in collaboration to iron out any measures.

## 부 록

### < 설문지 >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 및 생명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과 도덕성 및 생명의식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가 그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 연구하기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신상에 아무런 해가 없음을 약속드리며,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답변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양선영

#### \*일반사항

1.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 하세요.

\*학년 : 중학교 1, 2, 3학년/고등학교 1, 2, 3학년

\*성별 : 남/여

\*학교형태 :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2.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불교 ②기독교 ③카톨릭 ④무교 ⑤기타( )

3. 당신의 가족관계를 자세하게 쓰세요. (예 :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나)

---

4. 가정에서 부모님은 평소에 낙태, 임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니까?

①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

②물어보면 대답은 해 주신다

③TV나 매체에 등에 의해 기사화 된 내용이 있을 때 가끔 이야기하신다

④자주 이야기해주는 편이다



2.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 ①가정            ②학교            ③교회  
④인터넷        ⑤기타 교육시설(            )

3. 당신은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부터            ②배아단계(14일)부터  
③10주 이후부터(신체구조의 완성)    ④태동이 느껴질 때부터(5-6개월)    ⑤탄생  
(분만)시부터

4. 낙태를 할 경우 누구와 의논하겠는가?

- ①부모님        ②선생님        ③친구나 선배  
④남자친구    ⑤본인의 의지에 따라(상의하지 않는다)

5. 당신은 낙태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본인                            ②부모님                            ③상대방(남자친구)  
④태아                            ⑤시부모나 어른                            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6. 당신은 배속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느낄 수 있다                            ②느낄 수 없다

6-1.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부터            ②배아단계(14일)부터  
③10주 이후부터(신체구조의 완성)    ④태동이 느껴질 때부터(5-6개월)    ⑤7개월  
이후부터

7.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태아의 생존권을 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결정할 수 있다                            ②결정 할 수 없다  
③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해

1. 여러분은 낙태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알고 있다

②모르고 있다

8. 우리 나라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낙태를 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알맞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②지금처럼 현실과 법의 융통성에 따라야 한다

9. 현재 우리 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시기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태시기를 다시 제정한다면 언제까지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자와 난자의 수정직후

②배아단계(14일)까지

③임신한 날로부터10주 까지(신체구조의 완성)

④태동이 느껴질 때까지(5-6개월)

⑤시기에 상관없이

10. 여러분은 친구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입양)

10-1. 만약 위의 10번이 자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입양)

11. 일반적으로 태아의 기형(다운 증후군, 간질, 전염병)을 알았을 경우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      ④입양시킨다

11-1. 만약 위의 11번이 자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치료에 힘쓴다    ④입양시킨다

12. 여러분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낙태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입양)

12-1. 만약 위의 12번이 자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낙태 해야한다    ②나아서 키운다

③소중한 생명이므로 출생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입양)

13. 만약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을 비롯한 생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까?

---